

강원농협 창립 60주년 축산물 나눔행사·동해농협 '총화상' 수상



1 장덕수 강원농협 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동해농협에 농협 최고 권위 표창인 총화상을 전달하고 있다. 2 강원농협, 축산물 릴레이 나눔행사 진행 3 강원농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외투 기부 행사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8월 27일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나눔축산물 나눔 릴레이' 행사를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이웃과 온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강원농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강원도지부, 도내 11개 축협과 함께 소외계층 440가구에 축산물 세트(한우골감탕·장조림·삼계탕·삼겹살)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동해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직원 단결과 사회공헌, 고객 감동, 경영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최우수사무소에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받았다. 동해농협은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과 비료 무상 지원, 유기질비료 보조, 영농자재구매 할인 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지역과 상생하는 공익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온 것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